

간호원의 위치에 대한 역사적 고찰(국외)

이 송 희

(Imperial Convalescent Hosp, 간호감독)

대한간호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의 일부인 이 학술 대회에 발제 강연 연사로 참석하게 된 것을, 간호직을 천직으로 택한 제 생애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여 먼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본회 회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학술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거대한 역사적 행사에서 발제 강연을 맡기에는 너무나 천식한 저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 사정도 있어 공식적으로 사양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김 은자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남가주의 안정우 회장님과 임원들의 적극적인 권유와 여비 지원, 그리고 저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동문회의 초청 및 체제비 지원 등, 그 사랑과 성의에 보답하는 뜻으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에 열거한 여러 단체와 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간호원의 위치가 향상되었고 그 활동 분야와 기능이 광범해지고, 따라서, 그 책임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원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겠으나 저는 국외 대표 연사의 입장에서 간호원의 국제 교류 및 해외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의 활발한 국제 교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후일 역사가들의 관심거리가 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전문직 간호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의 Florence Nightingale 은 1860년에 세계 최초로 London 에 간호학교를 설립하였고, 이

간호학교의 졸업생들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간호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간호는 역시 여러 방면의 현대 문화, 또는 여성 교육의 발달과 더불어 19세기 말엽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한 구미 여러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초대 선교사 간호원들을 통해서 한국 간호 사업의 시초가 시기적으로 훨씬 빠르게 마련되었고, 또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즉 복음 전도를 겸한 간호 활동이 우리 현대 간호사를 내용면으로나 제도상으로 알차게 장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현대 간호 사업의 선구자들이 이미 일세기전 교통도 지극히 불편한 시대에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간호 학교를 설립하고 현대 간호를 소개한 것은, 국제간호협회가 제정한 간호원 윤리 강령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간호의 요구는 전세계적인 것으로 간호 본연의 자세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그리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간호는 극적이나 인종, 종교, 피부의 빛깔, 연령, 성별, 정치 또는 사회적 배경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교사 간호원들은 “국제적인 수준 위에서”라는 표어를 내걸고(초기 간호 사업을 개척하여, 간호의 내용 뿐 아니라 1929년대부터 우리가 국제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사실은 오늘날의 한국 간호원들의 활발한 국제적인 진출을 생각할 때 그것이 모두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간호 사업 발전에 있어서 간호원들의 자치적인 조직적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정

인 동시에 크나큰 결실을 가져 왔다고 하겠읍니다. 선교사 간호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의 필요를 느끼고 Shields 양을 위시하여 5명의 간호원이 1908년 3월 20일, 재조선 서양인 간호원회를 조직하였고, Shields 양이 초대 회장이 되어, “간호 사업의 수준 향상과 한국 간호원을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연구”를 목표로 일을 시작하여 그들이 세운 목표 이상으로 일을 하였고 그로부터 14년 후인 1922년에는 한국 간호원도 많이 육성되고 ICN 가입에 대한 목적도 있어서 회의 개편을 결의하고, 그 다음 해인 1923년에 조선 졸업간호원회를 조직했는데 한국인 간호원을 합해 50명이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한국 간호원이 정식으로 조직적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후일에 가서 이 해를 대한간호협회의 창립연도로 삼았습니다. 이와같이 초기 선교사 간호원들의 공적도 잊을 수 없거니와 개척자적인 정신과 투지력이 풍부하였던 간호사업 원로 지도자들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간호법을 배우고, 가족 이외의 사람을 간호하면서 직업 전선에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이 효경선생과 1923년 초대 회장이셨던 이 금전 선생이 Shepping 양과 함께 Canada Montreal에서 열린 ICN 대회에 본회 대표로 참석하셨는데, 이것이 한국간호원 자격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 회의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독립된 이후, 간호계에는 주권국으로 기대되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발생되었는데, 즉 주무부인 보건사회부 내에 전국 간호 사업을 주관하는 간호사업과가 설치되었고, 1949년에는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이던, 국제간호협의회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어 공식적으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래의 해외취업이나 취업 이민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간호 교육과 간호사업을 발전시킨 공로자들중 많은 분들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간호 사업이 많이 발달된 나라에 가서

유학 혹은 연수를 하고 귀국하여 교육 제도나 실무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화대학부를 1927년에 졸업한 이금전 선생께서 ICN 참석차 Canada 에 가셨다가 Toronto 대학에서 보건간호학을 전공하고 귀국 후 우리나라 보건간호학을 개척하였고, 역시 이화대학교 출신의 이 정애 선생은 1930년 하와이 퀸 병원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에 와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현대 간호학 강의를 담당하였습니다. 손 옥순 선생과 이 영복 선생은 1937년 오스트레일리아의 Royal Melborn 병원에 2년간 유학을 하였고, 군정 기간과 정부 수립을 전후하여 여러명의 민간 및 군간호들이 외국에서 새로운 학문과 경험을 쌓았으며 또 이들을 통해서 구 사회에 한국간호계가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귀국이후 행정, 임상 각 분야에서 간호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 사업의 수준을 향상, 시키고 간호원의 '열의 응호, 지위의 향상,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민족적 비극인 공산 복괴의 침략후 간호 교육과 업무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민주 우방 여러 나라에서 군과 민간의 간호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와서 수고한 간호원들이 우리 나라 간호 교육, 행정, 업무면, 그리고 간호원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활약과 공로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습니다.

간호 교육을 위한 외국 원조로 특기 할만한 일은, 1956년과 60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재정을 위한 ICA 원조인데, 미국 Minnesota 대학과의 계약으로 교환교수 Program 이 이루어져, 그 계획의 일환으로, Minnesota 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교수들을 간호 고문으로 서울대학에 파견하고 이 귀향선생과 홍 여신선생 비롯한 여러명의 교환 교수가 그 대학에 유학하여 오늘의 서울대학 간호학과와 병원 간호 행정 체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원조에 의해 간호학과 건물과 기숙사도 신축되었습니다.

또, 6·25 동란이때 민간 구호에 힘써오던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사절단을 구성하고

제 4 회 국제간호학대회

한국 정부의 공동 사업으로 5개년간의 협정을 체결한 후 국립중앙의료원을 설치했으며 또 우수한 간호원을 선정하여 그 나라에 유학을 시켰고 그분들이 오늘날 간호교육계의 중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 1 부회장이신 김 순자 선생도 그 중의 한 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W.H.O 서태평양 지역 나라들이 간호교육, 간호 행정, 간호 업무, 모자 보건사업 등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될 때, 정부의 추천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된 것은 지역적인 발달과 더불어 이 방면 간호원들끼리의 국제적 교류를 위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협회 추천으로는 ICN 교환 간호원 계획에 의하여 외국에 추천한 것이 수십명이었고, 이 사업은 특히 과거 수년간 미국간호협회에서 교환 간호원의 Sponsor 로 많이 협조하였습니다.

이상에 열거한 경우는 간호 교육의 수준이나 간호 사업이 발전된 나라에 가서 학문과 기술을 습득한 간호원들이 대부분 귀국하여 우리나라의 간호 교육이나 간호 사업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사례들입니다. 국제 교류를 통한 학문과 기술의 습득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간호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되었고 이들을 통한 간호 교육 및 간호 업무의 질적 향상은 간호원의 지위에도 향상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 교류와 국제 사회 봉사에서 특기해야 할 것은 1964년 당시 우방 자유월남에 파병과 동시에 파견된 처음 6명의 간호 장교를 비롯 계속 군 간호원과 민간 간호원까지도 파월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간호원이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25 등란 등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민주 우방의 젊은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고귀한 피를 흘려 우리의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또 여러모로 군사 원조를 통해 우리 간호 사업을 도와준 사실을 상기할 때에 다소나마 우리가 다른 민족을 위해 무엇을 공헌하였다는 사실은 크게 자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 동시에 이불 파월군민 간호원들은 학위 선양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국제 교류는 더욱 활발하여지고 또한 우리 나라 간호 지도자들의 국제 사회의 위치도 괄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극위도 많이 선양되었습니다. 제가 1973년 Mexicocity에서 개최된 ICN 4년차 총회에 대표로 참석하였을 때 그 순서에서 세계적으로 간호 사업에 공로가 큰 위대한 간호 지도자들이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제일 먼저 입장할때에 당시에 참석하였던 전세계의 간호원들은 홀모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후 8년만인 1981년에 Los Angeles에서 ICN 총회가 열렸을 당시 세계적 간호 지도자들이 입장하는 그 때열에 전 ICN 간호사업 자문 위원인 우리의 하 영수박사가 우아한 한복차림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더욱 가슴이 벅찼던 것은, 100여명의 한국 간호원이 참석하였고 본회 김 모임회장이 서태평양지역 이사트 선출되어 명실공히 국제간호협회의회 주도적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Brazil에서 열린 CNR 이사회 때 회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표 3명이 크게 활약하여 Elizabeth 여왕을 patron으로 하는 영국을 물리치고 압도적인 다수의 표를 얻어 1989년 ICN 총회를 우리 나라에 유치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 간호사회에서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경식박사는 세계보건기구의 간호담당관으로 이미 10여년간 세계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인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은 간호계의 빛나는 혜성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회에 공헌한 결과로 오늘에 이른 것이고, 또 80여년간에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간호의 자원이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미국 및 캐나다로의 간

호원 이민 및 해외취업의 길이 열렸고 또 65년도에는 보사부—서독간의 집단 고용 계약 체결이 계기가 되어 해외취업이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미국에 약 1만 5천명, 서독에 연인원 1만명이 넘는 간호원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6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 간호원들이 진출하기 시작하여 현재 리아드 국립 병원에는 300명의 우리 간호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실 1960년초에서 1974년경까지는 해외진출로 인해 경험있는 간호원들의 이직율이 높아서 간호행정자들은 업무 수행상 곤란을 많이 겪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간호 인력의 국내의 수요 공급의 균형을 위하여 간호 학교를 증설하고, 학급 정원을 증원하였지만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야 할 시설의 확충과 자격있는 교수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적 권에 영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즉, 정부의 인력 수출 정책, 이민 정책은 특히 간호 인력이 필요한 국가들의 인력 수용정책과 때를 맞추어 대량의 간호 인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한국 간호계에 양적 혁명을 가져온 동시에 여성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인 각광과 인정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호 인력 수출 조차기의 간호원의 숫적 부족에서 온 희소 가치에 따라 간호원의 대우 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에 박차를 가해 주었습니다.

1967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였는데, 제35차 원주 총회가 끝나는 날 밤 10시에 간호인력의 대량 해외 유출로 인하여 국민보건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간호직의 대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결의하고 건의문 작성을 위임받은 이영복 선생을 위시한 위원들은 밤을 새워 건의문을 작성하여 2개 일간지에 건의서를 실어 청와대를 놀라게 하였고 공무원 간호원의 간호직 수당을 얻기 위해 당시 회장이셨던 홍 신영 박사님을 선두로 특별 위원들이 주야로 분투 노력한 결과

1967년 12월 드디어 간호직 공무원의 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규정화되었고, 이에 따라 시립병원 간호원의 대우도 따라서 개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합니다.

해외에 진출한 간호원들은 배우고자하는 열의, 근면, 성실, 인내로 언어의 장애, 문화의 차이, 기타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여 세계 도처에서 우리 나라 인력 진출의 길잡이가 되었을 뿐 아니라, 낯선 땅에 건너 와 배움을 위하여, 또는 취업을 위하여 고생하던 동포들의 활프 개척에 선구자적 모범을 보여주어 교민 사회의 기쁨을 든든히 만들어 주었고 막대한 의화 획득을 통해서도 조국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전파하는 기구로서 국위를 선양하는데 이바지한 바도 크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1975년 1월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New York City에서 약 2년 반, 그 후 Los Angeles에 이주하여 현재까지 R.N.으로 근무하고 있음으로 서독을 위시한 구라나나 중동 지방의 사정에는 어둡고 또 미국도 한정된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간호원들이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우선 간호원의 해외 진출은 지금까지도 잘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잘하는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세계 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인구증가와 좁은 땅에서의 자원 고갈이라는 현실 속에서 인력 진출을 통한 고용 증대 및 의화 획득에 대한 기대는 현 한국의 경제 실정에 비추어 절실하게 요청되는 바 라고 봅니다.

제가 국내 사정을 잘 모르지만 과거급진적으로 증설된 간호 학교에서 배출한 신졸업간호원과 기성간호원들이 잉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간호는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

에 지리적, 또는 국가적인 경계 없이 활동 무대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간호 교육의 수준이 비교적 높다는 점, 또 지금까지 진출한 간호원들이 현지에서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외 간호원 취업 시장을 널리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이민 역사는 불과 20여년밖에 안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 간호원의 총 수를 약 1만 5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단일 민족, 특히 소수 민족별로 보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내에서 간호 대학에 재직중인 한국인 교수들의 저술 및 연구 활동도 활발하여 점차로 소수 민족이라는 굴레를 탈피하여 미국 간호협회와 같은 단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와이주 간호 협회의 회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최근 Washington D.C에서 개최된 ANA 총회에서 알려져 한국인 간호원들의 사기를 크게 높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1년 하와이 간호협회장에 선출된 토시 강여사는 폭넓은 지식과 간호 경력으로 하와이 뿐만 아니라 미국간호협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간호계의 인물입니다. 일리노이대의 부교수 이미자씨는 82년 ANA 53차총회서 Diagnosing for Health 라는 제목의 회의에서 The State of Science and Art of Nursing Diagnosis 라는 발제 강연을 하였는데 약 700여명이 이 발표회에 참석함으로써 크게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또 그가 편집한 Classification of Nursing Diagnosis 책이 많이 토론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또 Elizabeth 최 박사는 현 인디애나 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중에 있으며, ANA의 Nominating committce에 출마하였고 Rhode Island 대학 교수로 있는 김 혜숙박사는 Research committce에 출마하였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이러한 젊은 이들의 '선의의 야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러한 훌륭한 우리 한국 간호원들이 있다는 데에 긍지를 가져봅니다. 이번 Panel Discussion에 Panelist로 나오신 랜디 대학 손 난주교수도

교육 및 연구 활동을 많이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수년간 재미 간호협회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끌어 가면서 금년에 USC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김 은자회장 남가주에서 근 10년간 R.N.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 정숙씨, 또 정 효진씨, 송 정숙박사등은 미국에 있는 우리 간호원들을 대표하는 귀중한 인력 자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분들은 교육, 연구, 조직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예시만 대부분의 한국 간호원들은 병원 간호에 종사하고 있는데, 랜디 대학 손 난주교수의 연구 조사 "재미 한인 간호원의 직업 만족도"에 나타난 내용에 의하면 미국에서 취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려운 점으로는 언어 장애가 문제가 되며 직장에서 승진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979년부터 약 2년간 Registry를 통해 근무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San Fernond Valley 지역의 20여개 병원에서 한국 간호원들이 근무하는 상황을 주의깊게 본 바에 따르면 모두들 영어도 잘하고, 일도 잘하며 대인 관계면에서도 직업적으로 잘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R.N. 면허를 취득한 후의 상태인 반면, R.N.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의 그 노력과 고통은 실지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있는 젊은 간호원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단번에 혹은 2차에 걸친 시험에 결과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년을 두고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애쓰는 간호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가주를 비롯하여 New York, Chicago, Dallus 등 지역의 선구자 간호원들이 간호원회를 조직하고 License 획득에 필요한 R.N. Review 강좌를 통하여 뒤늦게 이민은 간호원들을 돕고 있으며 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2년마다 면허 갱신을 위하여 Continuing Education Credit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좌도 마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6년 7월 30일에 창립된 재미간호협회는 교육 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한 한인 간호원의 자질 향상, 회원의 권익옹호 및 진북 강화, 모국 협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내의 5개 간호원 지회를 두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총회를 개최 지회 육성, 국제간호학술대회 및 모국 방문 등의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료인들과의 공동작업으로 교포들에 대한 무료 건강 진단, 진단 및 건강 상담 사업, 노인들을 위한 경로회, 양로원 방문 등도 개최식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 등 참으로 바쁜 생활 중에서도 승고한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원의 해외 취업이 우리나라 간호사업의 발전과 간호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전제할 때, 우리는 해외 간호원들의 취업 시장을 넓혀야하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미국으로의 취업 이민의 길이 많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협회에서는 미국인들이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기 위해 해외에서 오는 간호원들로부터 CGFNS 라는 Screening test 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미국에 온 간호원들도 1982년 7월부터는 NCLEX-RN(엔클릭스 RN)으로 불리는 새 시험 제도를 거쳐야만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 시험은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간호원의 태도 측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평가, 분석, 기회 보완, 검토 등 간호 과정을 구성하는 5개 간호 단계에 따라 간호원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임상적 실무 경험과 응용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Los Angeles 의 경우 2년 전만해도 R. N. 이나 LVN 의 편히만 획득하면 취업의 기회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서 한국 간호원들이 편히 취득하고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셋째, 문제는 간호원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간호원들이 직장에서 자기 position 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간호원의 활동무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간호원의 취업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취업시장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간호교육에 세계적 통용어인 영어를 교과과정에 많이 삼입하여야 겠고 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간호교육과 실무면에서 간호원들이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임상적 실무경험과 응용능력을 기르는데 힘을 경주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들의 권익과 지위의 향상을 위해 더 강한 조직적 활동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우리는 간호협회 60년사를 통해 우리회원들이 일찌 단결하여 우리의 권익옹호를 위해 투쟁하여 승리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사례는 김영자 간호원의 주사 사건입니다. 1969년 5월 부산진 보건소근무 김영자회원이 주사사건으로 억울하게 구속 기초되어 의료법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을때 본회에서는 이를 전체 간호원들의 직접문제로 다루어 투쟁했던 사실입니다. 당시 본회에서는 엠베세도호텔에 투쟁위원회 본부를 설치하고 면밀한 조사와 강력한 건의와 주사실시행위 거부와 실행행사로 전국회원이 일찌 단결하여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결국 김영자 간호원은 무죄판결 되었고 의사 처방에 의한 간호원의 주사행위가 주사행위시행상 과오가 없는 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처방자에게 있다는 요지를 의료법 시행령에 삼입하여 합법화 시켰습니다. 다른 사례는 한국간호사상 처음 발생된 정신과 병동에서의 주현옥간호원 순직사건입니다. 1973년 5월 11일 경희의료원 정신과 병동에서 주현옥간호원이 근무중 환자에게 피살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처리에 있어서 병실에서 TV를 보다가 피살되었다는 매스컴의 오보와 의료원 당국의 소극적인 수습태도에 의한 환자측의 무성의 등에 대항하여 협회에서는 주야를 가리지 않는 조직적인 행동과 법적활동까지도 벌여서

제 4 회 국제간호학술대회

부정한 결과, 손익사실을 확인 보도케 하고 의료원 장래를 치르케 하였으며 350만원의 보상을 유족에게 전달케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들은 전 회원이 단결하여 우리회를 발전시켜 왔지만 이 60주년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넓히고 인도주의 구원이라는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간호를 전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 국내외 회원들이 더욱 단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본회 정관 제10장 제67조 제1항에 “해의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부 결성총회의 결의와 본회의 인준을 받아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5개의 한인간호원 지회를 가진 재미 간호협회나 서백림 간호원회가 있지만 아직까지 본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에도 현재 300여명의 간호원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간호원회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본회와 해외 간호원회가 진밀하고 신속한 협의를 하여 해외 간호원회가 하루속히 본회의 해외지부가 되어 지부로서의 의무도 이행하고 지부로서의 권리와 대우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한 발언권과 선거권도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유능한 간호원이 많이 나가므로 해서 간호의 두뇌가 유출된 것도 사실이나 우리들이 미처 발판하지 못한곳에 유능한 두뇌를 가진 간호의 인력자원을 우리

사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수적이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귀국후 본회 사무실에 들러 얻은 자료에 의하면 평생회원수가 총 7,263명인데 비해 해외에 있는 평생회원수는 2,582명으로 전체 평생회원수는 1/2.8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관 제13장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본회의 제반 공고사항은 회장이 각 지부장에게, 각 지부장은 각 회원에게 통고하거나 본회 회지 또는 일반공고기관을 통하여 ‘공고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로서도 해외에 있는 평생회원들에게 위 부칙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본회의 회원이 되기로 맹세하고 의무를 이행한 성실한 해외의 회원들은 실로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또, 정당한 의사전달의 매개체도 갖지 못한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재미간호협회나 해외지역 간호원회는 어떤 다른 나라 간호원으로서 구성된 간호원회가 아님을 상기 시키고 싶습니다. 간호는 하느님의 의와 선을 구현 시킬수 있는, 인도주의 구원이라는 숭고한 이념을 위한 과학이며 예술이며 기술이기에 또한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요구하는 귀한 사업이기에 우리는 열의와 열망, 긍지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우리의 일터를 전세계 무대로 확대 시키고 우리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로서 보다 더 양질의 간호 봉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